

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📌 주요 내용

🎯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핵심광물) 美, 중국산 흑연 음극재 반덤핑 예비판정 및 93.5% 관세 조치 예고 1
- 중국산 흑연 음극재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공정가격 대비 현저히 낮다고 판정하며 93.5% 덤핑률 산정

📊 경제통상 동향

- (에너지) 블룸버그, 재무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정 지침 관련 쟁점 제기 3
- (미중관계) 중국 언론, APEC 정상회의 전후 미-중 정상회담 가능성 보도 4
- (산업정책) 백악관 경제자문위, 조선산업 육성을 통해 LNG 수출 확대 구상 4

🏛️ 의회법안 동향

- 2026 국방수권법 1건 5

💬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6
- 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 7

📅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7.23(수)	• 6월 주택 판매(Existing home sales)
7.24(목)	• 7월 셋째 주 초기 실업수당 청구(Initial jobless claims)
7.25(금)	• 6월 내구재 주문(Durable-goods orders)

(핵심광물) 美, 중국산 흑연 음극재 반덤핑 예비판정 및 93.5% 관세 조치 예고

1. 개 요

□ 미국 상무부,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(7.17)

- 중국산 흑연 음극재(AAM)가 미국 내 공정가격 이하(LTFV)로 판매되고 있다고 잠정 판정하고, 93.5%의 반덤핑 관세 부과 추진
- 동 조치는 북미 음극재 생산자 협회(AAAMP)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,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보호 및 배터리 소재 국산화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
- 상무부는 중국 주요 음극재 기업(BTR New Material, CATL 등)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시장 통제를 통해 불공정 저가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
- 상무부 예비판정으로 중국산 AAM 수입업체는 93.5% 현금예치(cash deposit)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, '25년 12월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관세율 확정 예정

< 중국산 AAM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경과 >

날짜	주요 경과 및 조치 내용
'24.12월	· 북미 음극재 업체 연합의 AD/CVD 청원 접수, 조사 개시('25 1.15)
'25.5월	· 상계관세(CVD) 예비판정(보조금 지급 인정)
'25.7.17.	· 반덤핑(AD) 예비판정 발표(93.5% 관세 부과)
'25.12월 예상	·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(예비판정 발표 후 135일 이내)
'25.12월 (예정)	· 국제무역위원회(ITC) 산업피해 최종판정
최종 판정 이후	· 조치 발효 및 관세 부과 집행

[자료] 미 상무부, 연방관보 종합

2. 상 세

□ 중국산 흑연 음극재 반덤핑 예비판정 주요 내용

- 미국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통해 중국산 흑연 음극재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공정가격 대비 현저히 낮다고 판정하며, 93.5% 덤핑률 산정

- 흑연 음극재는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로, 미국은 '23년 약 3억 4,700만 달러의 중국산 AAM을 수입하며, 전체 AAM 수입의 약 2/3를 중국에 의존
- 주요 수출·생산기업*에 일괄적으로 93.5%의 관세를 부과하며,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해 전국 단위(China-wide Entity) 기준 102.72% 관세율 적용
- * 조사대상 기업 중 일부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의 중국 및 해외 생산법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(연방관보 [링크](#))
- 이번 조치는 기존의 대(對)중국 301조 (25%) 및 기본 관세(30%)와 중첩 적용될 예정이며, 총 누적 관세율은 약 160%에 이를 것으로 전망

< 중국산 AAM 대상 반덤핑·상계관세 부과 내용 >

구분	내용
대상 품목	중국산 흑연 음극재(Active Anode Material, AAM)
반덤핑(AD)	93.5% ('25년 7월 17일 상무부 잠정 판정)
상계관세(CVD)	별도 부과 ('25년 5월 예비판정 기준)
기존 대(對)중국 관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트럼프 1기 행정부 301조 관세 25% ▶ 트럼프 2기 행정부 對중국 기본 관세 30%
총 누적 관세율	<p>약 160% 수준</p> <p>(반덤핑관세 + 상계관세 + 기존 대중국 관세 합산)</p>

- 향후 상무부 반덤핑 최종판정과 국제무역위원회(ITC)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 결과를 종합해 관세 부과 여부와 최종 적용 관세율 확정 예정

□ 현지 반응

- 음극재 생산업체와 배터리 제조업체는 동 조치에 대해 상반된 입장 표명
 - 북미 음극재 생산업체는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 및 제조 기반 육성을 위한 기회로 평가하며, 자국 생산 확대에 대한 기대 표명
 - 글로벌 배터리 및 전기차 기업들은 북미산 흑연 음극재의 품질 및 공급량이 대규모 양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급망 차질과 비용 상승 우려
 -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핵심광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 중으로, 향후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 제기

■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

■ 자료원 | 연방관보(7.17), 폴리티코([7.17](#))([7.17](#)), 블룸버그([7.17](#)) 등 현지 언론 종합

(에너지) 블룸버그, 재무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정 지침 관련 쟁점 제기

• (배경) 재무부, 8월 중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정 지침 공개 예정

- 트럼프 대통령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, 규제 강화 및 관련 프로젝트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*에 서명(7.7)

* 신규 규제 종료, '32년까지 청정에너지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단계적 종료, 기준 미달 프로젝트 세액공제 차단, 외국우려기업 공제 혜택 배제 등 포함 재무부에 45일 내 세부 이행 방안 제출 지시

- 트럼프 감세법안(BBB)에 근거한 동 행정명령에 따라, 재무부는 8월 중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,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개정된 지침을 공개할 예정

• (상세) 블룸버그, 세액공제 개편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이 주시해야 할 쟁점 제기

- 재무부가 8월 발표 예정인 세액공제 개정 지침에 대한 예측 및 이에 따른 전망 언급

- ① 세액공제 요건 강화: △세액공제 기간* 단축, △'건설 개시(beginning of construction)' 기준 변경, 기존 5% 비용 지출 물리적 개시 기준 배제 가능성, △기준 유예(Safe Harbor) 남용 차단, △프로젝트 공정 지연에 대한 공사 진척 요구 강화 가능성 제기

* '27년 말까지 가동 또는 '26년 7월 4일 이전 건설 개시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에 한해 세액공제 가능

- ② 외국우려기업(FEOC) 관련 규제 강화*: △ 외국우려기업 부품 추적 시스템 설치 요구 가능성, △중국 의존도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공급망 압박 증가 및 비용 상승, △중소기업의 경우, 규제 대응 취약 직면(법적 지원 및 자본 부족) 지적

* '26년부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전체 부품의 40% 이상을 외국우려기업(중국, 러시아, 이란, 북한)이 아닌 국가 조달이 필수이며, '29년 까지 60%로 상향 조정

- ③ 재생에너지 성장 둔화 전망: 세제 개편으로 △'30년까지 풍력, 태양열 에너지 저장 117GW 감소, 풍력의 경우 허가·규제 애로로 인해 50%로 급감(블룸버그NEF), △100GW의 유틸리티 규모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위협, △향후 10년 동안 신규 청정 전력 용량 59%까지 감소 예상(로듐 그룹) 등 재생에너지 성장 둔화 전망 언급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
■ 자료원	폴리티코(7.22), 행정명령(7.7)

(미중관계) 중국 언론, APEC 정상회의 전후 미-중 정상회담 가능성 보도

- (개요)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(SCMP),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회의 직전 또는 기간 중 회담할 가능성 제기(7.20)
 -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(10.31~11.1일)를 위해 방한 예정이며,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미정이나 방중 또는 APEC 회담을 계기로 미-중 정상회담 가능성 제기
 - 양국 정상은 지난달 통화(6.5)에서 상호 초청, 이달 초 왕이 외교부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첫 대면 회동 진행(7.11)
 - (전망) 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, 대만 문제 등 외교적 변수에 따라 회담 진행 여부 불확실성 상존
 - 대만 총통 라이칭더의 라틴아메리카 동맹국 방문 시 미국 경유 가능성, 미 의회의 대중 강경 발언 등으로 중국 측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 또한 언급
 - 외교 전문가들은 “미국은 회담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, 중국은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접근”이라며 양국 정부의 온도차 지적
 - 향후 펜타닐, 수출통제, 희토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실무 협의 진행 여부*와 루비오-왕이 간 후속 회담이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
- * 미 재무장관 베센트는 다음주 초 스톡홀름 회담에서 중국 재무당국 고위 인사와 ① 대중 관세 인상 시한(8.12) 연기, ② 중국의 제조업 과잉 문제, ③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2차 제재 경고 등을 논의할 예정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Olivia Kim
■ 자료원	SCMP(7.20), 로이터(7.22)

(산업정책) 백악관 경제자문위, 조선산업 육성을 통해 LNG 수출 확대 구상

- (개요) 미국, LNG 수출 확대 및 조선산업 육성 위한 에너지 산업정책 추진
 -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(CEA)는 미국 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보고서*를 발간, LNG 수출 확대 및 조선업 활성화 등 에너지·통상분야 핵심 정책을 발표
- * 미국 에너지 잠재력의 경제적 이점(The Economic Benefits of Unleashing American Energy)

- CEA는 이번 정책이 LNG 인프라 확충, 조선업-철강업-석탄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, 미국 내 제조업과 해운 주권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

• (상세) LNG 수출 경쟁력 확보 위해 조선·통상 정책 동시 추진

- 미국은 2024년 기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며, 향후 신규 설비 가동으로 유럽·중국·인도 등 글로벌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 구상
-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4월 발표된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, '29년부터 미국산 LNG의 1%를 미국 건조·선적·운항 선박으로 수송토록 의무화하고 2047년까지 15% 확대하는 등 국적선 사용 비중을 확대할 방침
- * 301조 기반 향후 중국산 및 외국산 선박·차량 운반선 등에 입항수수료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 전망
- 미국 내 조선, 에너지·철강 산업계는 일자리 창출 및 신규 투자 확대에 긍정적 기대 표명, LNG 업계 일부는 미국산 선박 부족, 생산단가 상승 및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세부 규제 완화 요구 진행 중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백악관 자문보고서(7월), 인사이드(7.18)

📖 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2026 국방수권법 (7.18)	H.R.4016 (하) (‘25.06.16)	Ken Calvert (공)	<2026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 NDAA (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)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동 법안은 국방부(DOD)의 군사 활동 예산 제공 ▪ 단, 다른 NDAA법안에 포함된 군사 건설, 군인 가족 주택, 미 공병대 토목사업, 핵탄두 등은 제외 ▪ 하원 통과(221-209)

* 미국 동부 시간 7월 22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U.S., Philippines Strike Trade Deal, Trump Says (트럼프 “필리핀과 무역합의 도달해”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에 도달했으며 미국은 필리핀 수입 제품에 19%의 관세를,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</p>
The Washington Post	<p>Trump administration pulling U.S. out of cultural agency UNESCO again (트럼프 행정부, 유네스코 탈퇴 결정)</p> <p>트럼프 행정부는 분열을 조장하는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하며 국제기구 가입이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. 탈퇴 이유 중 하나는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며, 이에 대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깊은 유감을 표명해</p>
The New York Times	<p>American Steel Just Got More Expensive. Buyers Blame Tariffs. (비싸지는 미국 철강...철강 바이어 “관세정책 때문이야”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32조 관세를 부과한 후 Cleveland-Cliffs, Steel Dynamics등 미국의 대형 철강 생산업체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. 트럭 등을 제조하는 철강 바이어들은 가격인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관세 정책의 함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어</p>
CNN	<p>Trump announces trade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and terms of deal with Indonesia (트럼프, 필리핀 무역합의 및 인도네시아 합의 세부내용 발표)</p> <p>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이 “아름다운 방문”을 했으며 무역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혀. 한편, 데이터 유통 과세, 선적전 검사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 세부내용도 발표돼</p>
USA Today	<p>Trump says he's considering a new tax break. Here's how it could impact the housing market. (자본이득세 감면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?)</p> <p>금일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 중 주택을 구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할 때 부과되는 자본 이득세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. 다만, 추가적인 법률제정이 수반되어야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</p>

* 미국 동부 시간 7월 22일 15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5-23	PIIE,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	2025.07월
US25-22	미·중 무역 프레임워크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	2025.07월
US25-21	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현지 반응 및 전망	2025.06월
US25-20	미국 232조 관세 대상 철강 파생 제품 추가 지정에 따른 영향 분석	2025.06월
US25-19	미국 제조업 산업별 관세 정책 영향 및 현지 동향	2025.06월
US25-18	美 에너지 자립 및 원자력 산업 부양을 위한 행정 조치 주요 내용	2025.06월
US25-17	美 하원 세제 법안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수정 조항	2025.06월
US25-16	트럼프 행정부 IEEPA 기반 관세 조치에 대한 법원 판결 동향	2025.05월
US25-15	G7 재무장관 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현지 동향	2025.05월
US25-14	약가 인하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5월
US25-13	美 정기선 해운산업의 경제적 영향 및 항만료 추정 비용 분석 주요 내용	2025.05월
US25-12	2026 회계연도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5월
US25-11	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4월
US25-10	美 USTR의 중국 조선업 무역법 301조 권고 조치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04월
US25-09	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(NTE Report) 주요 내용	2025.04월
US25-08	'미국 우선 투자 정책' 대통령 각서 발표 및 주요 내용	2025.04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22 (2025.5.13.)		
코인시-21 (2025.2.8.)		

문의	이메일	전화
	seogil.chang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jwshim@kotra.or.kr	